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강경자*[†] · 정복남* · 문주영**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한국실크연구원 디자인개발팀**

The Effect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on the Image of Korean Dress's Wearer

Kyung-Ja Kang*[†], Bok-Nam Jeong* and Ju-young Moon**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R&D of New Textile Design,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

(2007. 2. 9. 접수 : 2007. 6. 2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a chromatic Korean jacket and an achromatic Korean skirt on the visual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dress wearer.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the 3 factors which were composed of 3 colors(red, yellow, green), 4 jacket tones(vivid, light, dull, dark), and 4 skirt colors(N9, N7, N4, N2). The 288 students 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essed the 48 stimuli which wear variously incorporated with colors and tones by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7-poi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mage factors of stimuli are youth and activity, graceful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Among these, youth and activity factors, and gracefulness factors proved to be important. The colors and tones of a jacket and a skirt used in this experiment showed that the colors and tone had an effect on dimension of 4 images by interacting of two valuables or working independently. While a yellow jacket with vivid and a white(N9) ski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youth and activity factors, a red jacket and a dark- gray(N4), -black(N2) skirt were evaluated as a graceful image. In the red jacket case, a visible factor was considerably different according to skirt tones. Only jacket tones worked as a striking clue in a tenderness factor.

Key words: coloration(배색), chromatic color(유채색), achromatic color(무채색), traditional Korean dress (한복).

I. 서 론

의복의 요소인 색상, 재질, 무늬, 디자인, 적합성 등은 대인 지각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색채는 복식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표현적인 요소

로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같은 색이라도 밝기가 서로 다르든지 혹은 회색 기미를 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결국, 같은 색이라도 명도, 채도에 따라 색채 자극 정도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색이 양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색상, 채도, 명도의 차원을 가진 시각적 경험의 속성으로,

[†] 교신저자 E-mail : kjkang@gsnu.ac.kr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므로 생리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색채의 특성은 어떤 관념의 상징, 심리적인 효과, 감성적인 효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색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관념화되면 보편성을 띠게 되어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가 된다. Debrey²⁾는 색이 갖는 다양하거나 보편적인 이미지 특성으로 인해 색은 언어보다 선행되어 빠르게 전달되며, 개인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조형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색은 언어보다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현 수단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들 색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특히 한복에서는 디자인보다 사용되는 색상이나 톤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색상과 톤에 의한 다양한 배색 방법이 시각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³⁻⁵⁾은 색상의 배색이나 색상 조화, 구조를 중심으로 이들 단서들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한복의 색상만이 아닌 톤에 의한 배색 방법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복의 색상과 톤에 의한 배색 방법에 따라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행 연구^{6,7)}에서 배색 방법의 유형인 치마, 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톤에 차이를 둔 톤 온 톤 배색, 그리고 톤 온 톤 배색과는 반대로 치마, 저고리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색상에 차이를 둔 톤 인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이 두 가지 배색 방법은 유채색

끼리의 배색 조합이다. 그러나 한복 착용시 배색 유형은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채색과의 배색으로도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색 중에서 무채색은 오랫동안 색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엄숙한 이미지로 그 색 사용의 범위가 한정되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무채색이 가지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품위,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그 의미를 달리하면서 색 사용의 범위를 넓혀지고 있다. 특히, 한복에 있어서 무채색은 특수한 상황이나 일부 한정된 부분에만 사용되었지만 무채색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와 감성이 변화하면서 현재는 한복에도 유채색과 무채색을 함께 사용해서 한복의 다양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채색간의 배색 조합이 아닌 유채색과 무채색의 2색 배색 조합으로 상의인 저고리는 유채색인 빨강, 노랑, 초록의 3가지 색상으로 하의인 치마는 무채색이 되도록 조합했을 때, 이들 배색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지각되는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저고리 색인 유채색과 치마 색인 무채색의 배색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의미분 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 구조를 밝히고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과 톤을 서로 다르게 조합시켜 봄으로써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의 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대체로 의복 이미지는 사용되는 단서의 특성

1) John Gage, *Colour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 11.

2) R. Debrey, *이미지의 삶과 죽음*, 정진국 역 (서울: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1994), p. 137.

3)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211-227.

4) 이혜숙, 김재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1998), pp. 597-606.

5) 이명희, “노년여성의 한복 빛 양상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권 (1999), pp. 187-202.

6) 강경자, 임지영, “톤 온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2005), pp. 804-818.

7) 강경자, 최수경, “배색 방법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권 6호 (2005), pp. 977-989.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형태, 색채, 재질, 패턴, 크기 등의 구성요소에 의해 표현된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형성될 때 상대방에게서 얻은 날개의 정보들은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Asch⁸⁾의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에서는 상호작용의 맥락에 의존하여 하나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상 형성시 색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단서로 사용되지만 상호작용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느 것이 인상 통합을 이루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느냐하는 점이 달라지게 된다⁹⁾. 특히 색채는 디자인 요소의 일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음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壁谷久代¹⁰⁾와 上野青一郎¹¹⁾은 색채가 형태나 구성선과 같은 다른 디자인 요소들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복의 경우, 디자인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소재나 색상과 톤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배색 방법은 한복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복은 두 색 이상의 배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의복 형태로 강혜원, 고에란¹²⁾은 전통성, 장식성의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한 한복 착용자의 인상이 평가, 품위성, 현대성, 실용성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혜숙, 김재숙¹³⁾은 여자의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복식 색과 색 조합의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사회성, 평가성, 현시성, 매력

성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평가성, 현시성, 매력성 차원은 색 변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한복이라는 동일한 의복 형태라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고, 단색과 배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명희¹⁴⁾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 연령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인상 차원은 선호, 품위, 능력·활동성, 여성성, 현대성의 차원으로 구성되고 분홍색과 옥색 한복은 능력·활동성, 현대성이 낮게 평가되어 난색의 적절한 배색이 능력 있게 지각됨을 시사하였다.

강경자, 임지영¹⁵⁾은 돈 온 돈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의 색상과 치마·저고리 톤 조합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젊음·활동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 저고리·치마 톤이, 매력적인 이미지 형성에는 치마 톤이,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이미지 형성에는 색상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적인 주 효과들은 다른 단서들과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한복의 색상은 저고리와 치마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색상 단독으로 작용할 때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고 하였다.

강경자, 최수경¹⁶⁾은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요인으로 3개의 이미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이 두 배색 방법을 통해 톤 인 톤 배색보다 톤 온 톤 배색이 보다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저고리 색, 치마 색, 톤의 조합 상태에 따라 이미지 차원은 다르게 지각되었다.

8) S. E. Asch,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46), pp. 258-290. 재인용,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2002), p. 43.

9) E. E. Jones and J. W. Tribaut, *The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1958), In R. Tagiuri &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0) 壁谷久代, 加藤雪枚, 檜山藤子, "被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8) (1980), pp. 35-42.

11) 上野青一郎, "衣服の嗜好に關する設計的硏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7) (1980), pp. 42-48.

12) 강혜원, 고에란, *Op. cit.*

13) 이혜숙, 김재숙, *Op. cit.*

14) 이명희, *Op. cit.*

15) 강경자, 임지영, *Op. cit.*

16) 강경자, 최수경, *Op. cit.*

의복 배색에서의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이 아닌 무채색과의 배색을 살펴보면, 검정색과 흰색, 더불어 이 두 색의 혼합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밝기의 회색들까지 포함된 무채색은 명도 변화를 통해 의복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검정색은 빨강색과 잘 조화된다. 빨강색은 강하고 따뜻하고,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 이미지로 다른 색에 비해 전달되는 특성이 많고, 검정색은 엄격함, 소극적, 어두움,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검정색을 첨단 이미지, 패션 비지니스, 더구나 형식적 이미지 추구에 사용하기도 하여 젊은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Delong¹⁸⁾은 색의 3가지 차원 즉 색상, 명도, 채도는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도 하며 의복 착용자의 표면 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미정, 김준섭, 이인자¹⁹⁾는 무채색 재킷과 무채색 스카프 색의 명도 변화에 따른 얼굴 밝기의 착시 현상을 연구한 결과, 흰색 재킷의 경우에는 스카프 색의 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얼굴 밝기가 어두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유금화²⁰⁾는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관련된 이미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중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이미지는 매력성, 친근성, 젊음성, 역량성, 유연성 5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²¹⁾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배색의 시각적 감성을 연구한 결과, 같은 유채색과 무채색 조합이라도 의복 배색 연출별 배색 방법에 따라 시각적 감성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대조 배색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무난한 감성으로, 유사 배색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매력 있고 성숙하며 무난한 감성으로, 악센트 배색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평가되었다.

문주영, 강경자²²⁾는 캐주얼웨어로 유·무채색 상의와 무채색 하의와의 배색에 대한 인상을 연구한 결과, 외모 평가 요인에서는 상의 색상이 빨강, 노랑, 초록일 경우, 하의 색상이 흰색일 때보다 검정색일 때 긍정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반해 안정성 요인과 활동성 요인에서는 상의 색상이 빨강, 노랑, 초록일 경우 하의 색상이 검정색보다 흰색일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무채색과의 조합에 따라 각 인상 요인은 차이를 보였다.

최수경, 강경자²³⁾는 무채색 톤과 스커트 폭, 길이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을 연구한 결과, 능력·활동성, 품위성, 매력성, 주의집중성, 온유성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되고 스커트의 폭이나 길이에 상관 없이 어두운 회색과 검정색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품위 있는 것으로, 흰색 착용자는 매력 있고, 부드럽고 밝은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팽숙경, 강경자²⁴⁾는 의복 유형과 체형, 무채색의 톤 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은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으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의복 유형에 상관 없이 흰색/회색, 흰색/검정은 품위 있는 것으로 회색/회색은 품위 없는 것으로, 검정/검정은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특히, 온유성, 귀염성 요인은 체형보다 무채색 톤 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

17) 김희정,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1997), pp. 195-209.

18) M. R. Delong,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1968), pp. 784-788.

19) 이미정, 김준섭, 이인자,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pp. 1287-1296.

20) 유금화,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56-70.

21)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의복 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2002), pp. 715-726.

22) 문주영, 강경자,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3), pp. 111-122.

23) 최수경, 강경자, “무채색의 톤과 스커트 폭·길이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3권 2호 (2004), pp. 317-328.

24) 팽숙경, 강경자, “체형과 무채색 톤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권 4호 (2006), pp. 631-646.

드럽고, 온화한 또는 산뜻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혜숙, 김재숙²⁵⁾은 또한 상·하 동색인 회색 한복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으며, 가장 자신감 없고 무능력한 인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강경자, 문주영²⁶⁾은 한·미 여대생에게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차이에 따른 지각 반응에서 한복 배색의 조화감을 평가하게 한 결과, 한국 여대생은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가 조화된다고 느끼는 이미지 배색의 분포 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여대생들의 경우 전통적인 한복 배색을 대하는 일상의 경험이, 미국 여대생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정장의 개념이 조화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채색의 치마, 저고리를 조합시킨 톤 온 톤 배색시와 유사한 조화 영역의 범위를 나타내어 색상배에 의한 조화 방법보다 명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고 본 Moon과 Spencer²⁷⁾의 견해가 톤 온 톤 배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조합에서도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톤의 유채색 저고리와 어떤 톤의 무채색 치마가 조합되느냐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이들 배색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또한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Gibbins & Schneider²⁸⁾도 의복 상의와 하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은 상의나 하의 각각에 대한 긍정적 인상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색이 사용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현재, 패션 컬러로 유채색만큼이나 다양하게 사용되는 무채색을 한복이라는 전통 복식과 관련지어 어떤 이미지로 지각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한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

께 전통 문화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선행 연구^{29,30)}와 동일하게 치마,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 방법이며 배색 구성은 저고리 깃과 고름색은 치마 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상은 다르게 하였으며 자수나 분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의 색은 무채색으로 하였으며, 명도 변화에 따라 흰색(N9),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으로 하였다. 저고리의 색상은 한국 고유의 전통 배색을 참고로 빨강 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동색인 빨강 저고리, 유사 배색이 되는 노랑 저고리, 대비 배색이 되는 초록 저고리로 모두 3가지 색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색상은 순색인 비비드(vivid)와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의 4가지 톤으로 조작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³¹⁾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색상을 선정하였으며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자극물의 제작은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

25) 이혜숙, 김재숙, *Op. cit.*

26) 강경자, 문주영,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7호 (2004), pp. 962-973.

27) P. Moon and D. E. Spencer, “Area in color harmony,”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 34 (1944), pp. 93-103.

28) K. Gibbins and A. Schneider, “Meaning of garments: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51 (1980), pp. 287-291.

29) 강경자, 임지영, *Op. cit.*

30) 강경자, 최수경, *Op. cit.*

31) 한국표준연구소, *한국표준색표집*, (KBS 문화사업단, 1991).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면셀 기호	
유 채 색	빨강 (Red)	Vivid	5R 4/14
		Light	5R 8/6
		Dull	5R 5/6
		Dark	5R 2/6
	노랑 (Yellow)	Vivid	5Y 8.5/14
		Light	5Y 8.5/6
		Dull	5Y 7/6
		Dark	5Y 3/4
	초록 (Green)	Vivid	5G 5/10
		Light	5G 8/4
		Dull	5G 6/4
		Dark	5G 2/4
무 채 색	흰색(White)	N9	
	밝은 회색(Light gray)	N7	
	어두운 회색(Dark ray)	N4	
	검정색(Black)	N2	

다. 최종 자극물은 저고리 색 3가지(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치마 색 4가지(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를 조합하여 만든 총 48개(3×4×4)의 자극물로 조작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실험설계

〈표 2〉 자극물의 조작분류

저고리 색 저고리 톤	Red(R)				Yellow(Y)				Green(G)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Vivid (V)	Light (L)	Dull (D)	Dark (K)
치마 톤 N9(9)	RV9	R9L	RD9	RK9	YV9	YL9	YD9	YK9	GV9	GL9	GD9	GK9
N7(7)	RV7	RL7	RD7	RK7	YV7	YL7	YD7	YK7	GV7	GL7	GD7	GK7
N4(4)	RV4	RL4	RD4	RK4	YV4	YL4	YD4	YK4	GV4	GL4	GD4	GK4
N2(2)	RV2	RL2	RD2	RK2	YV2	YL2	YD2	YK2	GV2	GL2	GD2	GK2

본 연구는 저고리 색 3가지, 치마 색 4가지, 톤 4가지의 3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48개의 자극물을 48개의 실험 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 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 되었다.

3) 의미 미분 척도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 착용자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³²⁻³⁵⁾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0쌍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25개의 형용사쌍이 최종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로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 극단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진주 시내에 거주하는 경상대학교 의류학을 비롯한 생활과학부와 자연계열, 사범계열,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여대생 5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9월 노범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저고리 색과 치마 색, 톤의 변화에 따라 한복 착용자가 주는 이미지의 요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과 Varimax의 직교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하였

32) 강혜원, 고애란, *Op. cit.*

33) 이현화, 박찬부,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호 (1997), pp. 313-336.

34) 이해숙, 김재숙, *Op. cit.*

35) 문주영, 강경자, *Op. cit.*

다. 각 이미지 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25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5$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다. 도출된 이미지 요인들, 즉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4, .90, .78, .7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복의 저고리 색과 치마 색, 툰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보조분석으로 나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복의 무채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차원 분석

유채색 저고리 색과 무채색 치마 색, 툰에 변화를 준 48개의 자극물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5개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아이겐 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32.1%로 4개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경쾌한-중후한, 밝은-어두운, 발랄한-점잖은, 산뜻한-칙칙한,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등이 포함된 13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배색으로 이현화, 박찬부³⁶⁾의 연구에서 젊음 요인과 인상 형성을 연구한 이명희³⁷⁾의 활동성 요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젊음·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20.8%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우아한-천박한,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품위 있는-품위 없는, 자연스러운-어색한 등 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8.2%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툰 온 툰, 툰 인 툰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인상을 연구한 선행 연구^{38,39)}의 현시성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나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6.0%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젊음·활동성 요인에서 경쾌하고, 밝고, 발랄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품위성 요인에서는 우아하고, 조화되고, 품위 있어 보이는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렬하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변량에서 도출된 4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7.1%이며, 이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이 52.9%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은 상·하의가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으로 조합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저고리·치마의 색상과 툰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착용자의 저고리·치마의 색상과 툰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 및 MC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착용자의 저고리 색, 저고리 툰, 치마 툰은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 효과를 보면 단서인 저고리 색은 현시성 요인을 제외한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치마 툰은 온유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고리 툰은 젊음·활동성과 온유성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서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요인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온유성 요인에서는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MCA의 편차 값에 근거한 ETA 값을 통해 주 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의복 착용자

36) 이현화, 박찬부, *Op. cit.*

37) 이명희, *Op. cit.*

38) 강경자, 임지영, *Op. cit.*

39) 강경자, 최수경, *Op. cit.*

〈표 3〉 유채색과 부채색 배색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젊음 · 활동성	요인 2 품위성	요인 3 현시성	요인 4 온유성	공통성(R^2)
경쾌한-중후한	.878	-.115	-.095	.049	.796
밝은-어두운	.872	-.052	-.159	.142	.808
말랄한-짐잡은	.844	-.229	-.036	.082	.773
산뜻한-척척한	.840	.189	-.156	.060	.770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818	-.118	-.138	.054	.706
즐거움-우울한	.769	.230	.043	.198	.685
활동적인-비활동적인	.767	-.136	.145	.142	.648
가벼운-무거운	.742	-.229	-.293	.054	.692
시원한-답답한	.736	.125	-.196	-.133	.613
귀여운-성숙한	.692	-.325	-.077	.049	.593
동적인-정적인	.667	-.123	.211	.087	.511
화려한-수수한	.631	-.020	.352	.108	.534
눈에 띄는-부난한	.594	-.159	.355	-.194	.542
우아한-천박한	-.096	.816	-.066	.138	.698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026	.804	.075	.098	.662
품위 있는-품위 없는	-.304	.784	.021	-.003	.707
자연스러운-어색한	.084	.781	-.089	.254	.690
안정된-불안정한	-.187	.771	.001	.063	.634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211	.747	.081	-.030	.611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246	.707	-.073	-.091	.574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052	.706	.020	.057	.505
강렬한-은은한	.008	-.078	.841	-.134	.732
강한-약한	-.171	.134	.838	-.055	.753
따뜻한-차가운	.110	.166	-.061	.883	.824
부드러운-딱딱한	.398	.238	-.281	.648	.714
고유치	8.0	5.2	2.1	1.5	16.8
전체 변량의 %	32.1	20.8	8.2	6.0	67.1
공통 변량의 %	47.8	31.0	12.2	9.0	100.0

의 인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3〉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미지 차원별로 고찰하였다.

1) 젊음 · 활동성 차원

〈표 4〉에서 보면 저고리 색과 저고리 · 치마의 툰이 한복 착용자의 젊음 · 활동성 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마 툰과 저고리 색은 한복 착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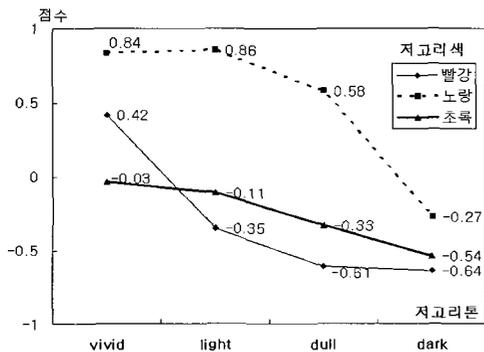
의 이미지를 지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고리 색과 툰 간의 상호작용은 젊음 · 활동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의 색과 툰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저고리 툰에 따라 저고리 색상 간에는 젊음 · 활동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

<표 4>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은유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 요 과	저고리 색(A)	35.384	69.852**	6.069	6.947**	1.161	1.456	22.400	25.631**		
	저고리 톤(B)	18.847	37.206**	1.893	2.166	1.721	2.160	7.508	8.591**		
	치마 색(C)	37.438	73.907**	12.388	14.179**	28.212	35.397**	.837	.958		
2원 상호 작용	A×B	3.199	6.316**	1.462	1.673	2.703	3.392**	1.183	1.353		
	A×C	.723	1.428	1.225	1.403	1.341	1.683	.931	1.065		
	B×C	.991	1.956	2.121	2.428*	1.268	1.591	.858	.981		
3원 상호 작용	A×B×C	.371	.733	.916	1.048	.845	1.060	.907	1.038		
M C A	변인	수준	편차	cta	편차	cta	편차	cta	편차	cta	
	저 고 리 색	Yellow	.51		-.21		.04		.10		
		Green	-.24		.06		-.09		-.40		
		Red	-.29	.37	.15	.15	.06	.07	.30	.29	
	저 고 리 톤	Vivid	.42		.02		.16		.24		
		Light	.15		.07		-.11		.17		
		Dull	-.11		-.18		.00		-.20		
		Dark	-.48	.33	.09	.11	-.05	.10	-.21	.21	
	치 마 톤	N9	.81		-.43		-.66		-.03		
		N7	-.21		-.03		.06		.10		
		N4	-.34		.24		.23		-.06		
		N2	-.28	.48	.23	.27	.38	.40	-.02	.06	
	Multiple R			.680		.326		.422		.367	
	Multiple R ²			.463		.106		.178		.135	

*p<.05, **p<.01.



<그림 1> 젊음·활동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저고리 색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

저고리 톤과 저고리 색상 간의 상호작용에서 저고리 톤이 다크일 때를 제외하고는 젊음·활동성에 대한 이미지가 저고리 색상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톤이 다크 톤일 때는 저고리 색상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비비드, 라이트, 덜 톤에서는 저고리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고리 톤이 비비드일 경우는 초록을 제외한 빨강, 노랑색이 밝고 발랄하며 산뜻하고 귀엽고 동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빨강보다 노랑색일 때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저고리 톤이 라이트, 덜 톤일 경우는 저고리 색상 간에 차이를 보여 노랑 저고리는 젊음·활동성 이미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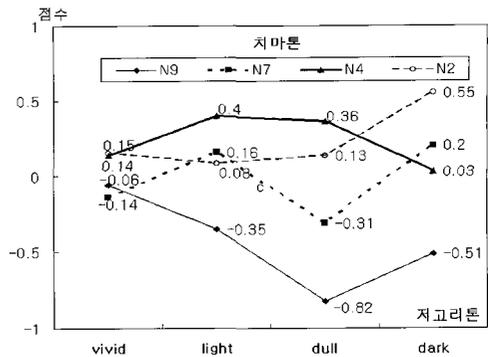
강한 것으로, 빨강, 초록 저고리는 상반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초록보다 빨강색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비비드 빨강 저고리는 젊음·활동성 이미지가 긍정적인 반면에, 라이트, 덜, 다크 빨강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툰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초록 저고리는 저고리의 툰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색상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저고리 툰은 다크 툰으로 평가되고 저고리 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색상은 초록색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젊음·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려면 라이트, 비비드, 덜 노랑 저고리, 비비드 빨강 저고리가 효과적이고 다크 툰은 색상에 관계없이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복 착용자의 젊음·활동성 이미지는 저고리 색상과 툰이 독립적으로 지각되지 않고 상호작용하여 같은 저고리 색상도 저고리 툰에 따라서, 동일한 저고리 툰도 저고리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품위성 차원

품위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저고리 툰을 제외한 저고리 색과 치마 툰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고리 툰은 치마 툰과 상호작용하여 품위성 이미지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서들의 주 효과를 MCA 평균값의 차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저고리 색은 빨강색인 경우에, 치마 툰은 N4, N2로 명도가 낮을 때 가장 우아하고, 조화되며, 품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남·여 대학생들이 캐주얼웨어에서 하의 색상이 건정일 때보다 흰색일 때 안정적이고 젊잖고, 선명하다고 보고한 문주영, 강경자⁴⁰⁾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의복 유형이 다르고 하의 면적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품위성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저고리, 치마 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한복의 저고리 툰에 따라 치마 툰 간에는 품위성 이미지가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



<그림 2> 품위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저고리 툰과 치마 툰의 상호작용 효과.

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저고리 툰과 치마 툰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비비드 저고리 툰은 치마 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저고리 툰이 비비드일 때 치마 툰이 검정(N2)이나 어두운 회색(N4)이면 긍정적으로, 밝은 회색(N7)이나 흰색(N9)이면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품위 없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저고리 툰이 비비드일 경우는 치마 툰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해 저고리 툰이 라이트, 덜, 다크일 경우는 치마 툰에 따라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저고리 툰이 라이트일 경우, 치마 툰이 어두운 회색(N4), 밝은 회색(N7), 검정색(N2)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고, 그 중 어두운 회색일 때 가장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 치마는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저고리 툰이 덜 툰일 경우, 어두운 회색(N4)이나 검정(N2)치마와 배색될 때 품위 있는 이미지를 주지만 밝은 회색(N7)이나 흰색(N9)치마와 배색될 때는 품위 없는 이미지로 지각되고, 밝은 회색보다 흰색 치마와 조합될 때 가장 품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저고리 툰이 다크 툰일 때는 흰색(N9) 치마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검정(N2)색 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품위 있는 이미지로 지각하여 다크 툰 저고리를 착용할 경우 치마 색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의 저고리 색상에 관계없이 다크 툰 저고리는 어떤 툰의 무채색 치마와도 조화되

40) 문주영, 강경자, *Op. cit.*

지 않는다고 밝힌 선행 연구⁴¹⁾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 배색은 조화는 되지 않지만 품위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배색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흰색 치마는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되고 특히 이러한 이미지는 저고리 색이 덜 톤일 때보다 강하게 지각되었다. 밝은 회색 치마는 저고리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저고리 톤이 라이트나 다크 톤일 때 품위 있는 것으로, 저고리 톤이 비비드나 덜 톤일 때는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어두운 회색 치마의 경우,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비비드나 다크 톤보다 라이트, 덜 톤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검정색 치마의 경우도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저고리 톤이 다크일 때 가장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어두운 회색, 검정색 치마는 품위 있는 이미지를 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명도가 낮은 무거운 느낌의 색이 아래에 배치되었을 때 즉 색의 무게감이 치마에 주어질 때 조화되고, 4가지 저고리 톤 모두 치마 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⁴²⁾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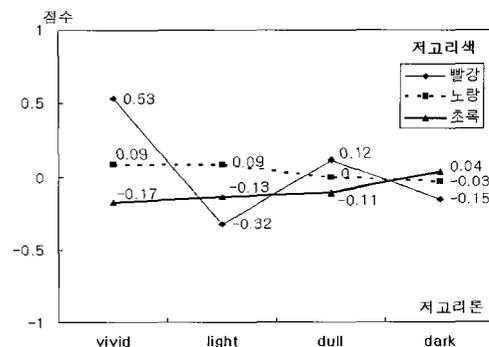
이상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톤 조합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서는 동일한 톤의 저고리도 무채색 치마의 톤에 따라, 동일한 톤의 치마도 저고리의 톤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하고, 품위성 이미지는 저고리의 톤만이 아닌 조합되는 치마의 톤이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3) 현시성 차원

〈표 4〉를 보면 현시성 차원에서는 치마 톤만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단서들, 즉 저고리 색과 저고리 톤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현시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치마 톤은 저명도일수록 강

렬하고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정장의 2색 배색에서 이미지 지각 차이를 연구한 유금화⁴³⁾의 선행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상의 색상이 노랑색일 때 오히려 하의 색상이 검정, 회색, 흰색 순으로 밝아질수록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상의 색상과 하의 색상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 논문에서 독립적인 영향을 준 치마 색상 즉 단서의 차이와 의복 유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시성 이미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저고리 색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저고리 색과 저고리 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저고리의 톤에 따라 저고리 색상 간에 현시성에 대한 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색이 빨강일 경우,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라 현시성 차원의 이미지는 차이가 큰 반면에, 노랑, 초록일 경우는 저고리 톤에 따른 현시성 이미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의 색상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저고리의 톤이 선명한 비비드일 경우, 저고리 색상 간의 인상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 저고리 색이 초록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으나 빨강, 노랑일 때는 강렬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고, 특히 빨강색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저고리 톤이 밝은 라이트 톤일 때는 빨강 저고리는 현



〈그림 3〉 현시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저고리 색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

41) 강경자, 문주영, *Op. cit.*

42) *Ibid.*, pp. 962-973.

43) 유금화, *Op. cit.*

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비비드 톤과는 상반된 지각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저고리 톤이 덜 톤일 경우는 빨강, 노랑은 긍정적으로, 초록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어두운 다크 톤일 때는 초록 저고리는 긍정적으로, 빨강, 노랑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저고리 톤이 덜 톤일 때마다 상반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대체로 초록 저고리와 노랑 저고리는 저고리의 톤 변화에 따라 현시적 이미지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빨강 저고리는 저고리의 톤에 따라 즉 비비드, 덜 톤에서는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라이트나 다크 톤에서는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하여 현시적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저고리의 색은 저고리의 톤과 상호작용하여 저고리의 톤이 동일하더라도 저고리 색상에 따라 현시적인 이미지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저고리의 색이나 톤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에서는 치마 톤을 제외하고 상의인 저고리 색과 톤이 주 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저고리 색은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나 한복 착용자의 온유성 차원의 이미지를 지각할 때 저고리 색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단서는 없었다. MCA 평균값의 차를 통해 주 효과를 살펴보면, 저고리 색이 빨강과 노랑으로 난색인 경우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저고리 색이 초록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저고리 톤은 비비드와 라이트인 경우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역동적이고 선명한 비비드 톤⁴⁴⁾이 한복 배색에서는 오히려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어 한복이 주는 부드러운 선의 이미지와 한복 고유의 색인 선명한 색상 또는 톤이 온유성 이미지 차원에서 지각단계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를 중심으로 저고리 색, 저고리와 치마의 톤 변화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25개의 형용사쌍을 요인 분석하여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떻게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채색 저고리, 무채색 치마, 톤의 배색 조합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차원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품위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3개의 요인인 유채색 저고리, 무채색 치마, 톤 조합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 젊음·활동성 차원의 이미지에는 3개의 의복 단서 모두, 즉 저고리 색과 저고리와 치마의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마 톤, 저고리 색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저고리의 색이 노랑이고 톤은 비비드, 치마 톤은 흰색일 때 가장 긍정적인 젊음·활동성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저고리 색과 톤 간에는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색이 노랑색이고 톤은 비비드, 라이트 톤일 때 가장 경쾌하고, 산뜻하며, 어려보이는 것으로, 저고리 색이 빨강이고 톤이 다크일 때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중후하고, 어둡고, 나이 들어 보이며, 비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품위성 차원에서는 저고리 색과 치마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마 톤이 지배적인 단서로 나타났다. 저고리 색이 빨강이고 치마 톤은 저명도인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일 때 품위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저고리 톤과 치마 톤은 상호작용하여 품위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고리 톤과 치마 색이 다크 톤과 검정(N2), 덜 톤과 어두운 회색(N4), 라이트 톤과 어두운 회색(N4) 또는

44) *Color Combination*, (I.R.I. 색채 연구소, 2003), p. 57.

밝은 회색(N7) 등 대체로 저고리 툄과 치마 툄 즉, 상·하의의 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도로 조합될 때 조화되고 품위 있고 자연스러우며 안정감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 현시성 차원의 이미지에서는 치마 툄만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쳐 저명도일수록 강렬하고 강한 어머지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저고리 색과 툄은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 색이 빨강일 경우 저고리 툄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 반면에 노랑, 초록 저고리일 경우에는 저고리의 툄 변화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유성 차원에서는 저고리 색과 툄 즉 상의의 단서만이 주 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저고리 색은 한복 착용자의 온유성 이미지에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저고리 색이 빨강과 노랑으로 난색인 경우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저고리 색이 초록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저고리 툄은 비비드와 라이트인 경우에 치마 툄은 밝은 회색(N7)일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저고리 색상, 저고리 툄, 치마 툄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정보로 또는 지배적인 단서로 작용하였으며, 이들 단서의 영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단서들도 지각 단계에서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45,46)}와 비교할 때 한복의 저고리 색상을 빨강, 노랑, 초록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저고리 색상에 조합되는 치마의 배색 방법에 따라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저고리 색상이 동일하더라도 저고리 색상을 기준으로 치마 색을 툄 온 툄 배색으로 조합하느냐, 툄 인 툄 배색이 되도록 하느냐, 유채/무채 배색이 되도록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각자가 느끼는 치마, 저고리의 배색에 대한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3가지 차원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되기도 하여 의복 착용자의 표면 효과로 작용한다고 본 Delong⁴⁷⁾의 견해와 상·하의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은 상의나 하의 각각에 대한 인상과 다를 수 있다고 본 Gibbins & Schneider⁴⁸⁾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어떤 색상의 저고리 툄과 어떤 색상의 치마 툄이 조합되느냐에 따라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채색의 색상과 툄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의 기본 색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채색의 툄 변화까지 다양하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소비자 개인의 개성과 자기 표현이 뚜렷한 현 소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색채와 툄을 변화시켜 의복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하고자 하는 의류 업체의 색채 기획시 배색에 관한 방향 제시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통제되었던 변인인 재질, 무늬, 상황 등의 다양한 조건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점에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인인 연령, 거주 지역, 학력 등에 따라 이미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므로 앞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1보)-톤 인 툄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강경자 (2002).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2보)-톤 온 툄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45) 강경자, 임지영, *Op. cit.*

46) 강경자, 최수경, *Op. cit.*

47) M. R. Delong, *Op. cit.*

48) K. Gibbins and A. Schneider, *Op. cit.*

- 28권 7호.
- 강경자, 임지영 (2005). “튼은 튼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4보)-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6호.
- 강경자, 최수경 (2005). “배색 방법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문인톤 배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권 6호.
- 강혜원 (2002).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 강혜원, 고예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 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김희경 (1997). “영화의상에 표현된 색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 형태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 유금화 (2001).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 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 이명희 (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상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호.
- 이미정, 김준섭, 이인자 (1997). “의복 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1)-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호.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 최수경, 강경자 (2004). “무채색의 톤과 스커트 폭·길이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3권 2호.
- 팽숙경, 강경자 (2006). “체형과 무채색 톤 조합에 따른 의복 착용자의 인상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권 4호.
- 한국표준연구소 (1991). 한국표준색표집. KBS 문화사업단.
- 壁谷久代, 加藤雪枚, 檜山藤子 (1980). “被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8).
- 上野靑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る設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7).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 Color Combination* (2003). I.R.I. 색채 연구소.
- Debrey, R. (1994). *이미지의 삶과 죽음*. 정진국 역. 서울: 도서출판 시가과 언어.
- Delong, M. 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 Gage, John (2000). *Colour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bbins, K. and A. Schneider (1980). “Meaning of garments: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51.
- Grandis, Luigina De (2000). *색채이론과 응용*. 박논서, 민철홍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
- Jones, E. E. and J. W. Tribaut (1958). The Interaction goals as bases of inference in interpersonal perception, In R. Tagiuri & L. Petrullo(Eds). *Person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n, P. and D. E. Spencer (1944). “Area in color harmony.”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 34.